



횡성 이야기

제27호 2016년 07월

● 발행인 : 백영선 ● 발행처 :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223) ● www.hsrehab.kr ● TEL : 033-345-7341~2 ● FAX : 033-345-7338



이용자 전체 나들이 독립기념관

날씨도 좋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5월 12일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용자 143명을 모시고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이용자 전체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보시는 분에게는 설레임을, 한 번 가보신 분, 20년 전 수학여행 때 다녀오신 분 등 오랜만에 가시는 분들께서는 서랍장에 숨어었던 앨범을 꺼내보는 향수를 선물 하는 듯 했습니다. 맛있는 불고기 식사 후 멀지 않은 거리를 달려 도착한 독립기념관의 웅장한 자태에 많은 이용자 분들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시원한 내부 기념관을

관람하고, 태극열차를 타고 주변 경관을 돌아보며 너나 할 것 없이 사진으로 담는 모습은 참 즐거워 보였으며, 더운 날씨에도 잊어버릴까 손을 꼭 잡은 이용자와 자원봉사자의 다정한 모습은 보는 사람의 가슴마저 행복함으로 물들일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날 대한적십자회, 누리스타, 한마음봉사단 등 76명의 자원봉사자의 인솔 협조로 나를 이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는 길 따뜻했던 호두과자의 맛처럼 달콤하고 고소했던 추억이 되었길 바래 봅니다.



2016년도 강원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며, 수채화의 특성을 잘 살려 채색을 마무리 해가고, 5분정도를 남기고 완성한 그림을 제출하였습니다. 늦은 오후 결과 발표가 나왔으며 기대에 못 미치기는 하였지만 올해도 은상이라는 상을 수상할 수 있어 감사하였고, 돌아오는 길에는 “내년에는 금상을 목표로 더욱 분발 해야겠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에 대해 의지를 다졌습니다. 미술교실을 빛내준 김차남씨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 강원도장애인기능경기 대회」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기능경기대회 미술부문에 우리 복지관 미술교실 이용자 김차남씨께서 참여하여 은상이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경찰관의 하루’였으며 김차남씨는 늘 미술교실에서 열심을 다하는 이용자중의 한분으로, 약간의 걱정이 있었으나 그 걱정마저 뒤로하고 대회가 시작되자 바로 집중을 하며 그리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동안의 미술교실에서의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보여 졌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 스케치를 끝내고 색칠을 하기 시작하였으

재활 · 희망 · 미래로의 동행

KOR

더 큰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나 함께하는 곳!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제12회 강원도장애인IT경진대회



아름다운 계절 6월에 제12회 강원도장애인IT경진대회가 개최되어 우리복지관 정보화교육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30여명의 참가자가 기본, 전문, e-Sports 등 총 11개 종목에서 그동안 갚고 닦은 정보화실력을 겨루었습니다. 우리복지관 참가자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하여 정보검색 최우수 임선정, e-Tool 우수 김미숙, 카트라이더 우수 이원희 씨가 각각 수상하였으며, 올해 신규 종목인 바리스타에서도 배지은씨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ICT활용과 능력개발의 계기를 마련하여 IT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자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끈임 없는 도전으로 세상과 조금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어르신~ 생신축하 합니다 ♥”



날은 점점 더워지는데, 마음 한구석은 서늘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 초라하고 서글픕니다. 홀로 지낸지 30년이 지난 공근면에 거주하시는 87세 어르신의 5월은 쓸쓸하였습니다. 우리복지관에서는 어르신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 드리고자 생신상 지원을 기획하였습니다. 입이 짙어서, 혼자 라서 드시지 못했던 음식들을 준비하고, 이웃을 초대해 멋진 생신상을 차려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이 온다면 새벽부터 일어나 바닥을 씻고 닦으시며, 혹시라도 밥이 모자랄까봐 쌀 좀 더 넣자고 하시던 어르신의 모습은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와 같이 순수하였습니다. 어르신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 같이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음식을 준비하신 자원봉사자분들,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웃 분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6월 10일 하루 동안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게 정성껏 생신상을 차려주신 횡성군전통음식연구회 회원 분들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제9회 평생학습축제 및 제94회 어린이날 행사

부모님과 함께해서 신나고! 친구와 만나 즐겁고! 추억을 만들어 행복하고!

5월 5일(목) ~ 5월 6일(금)까지 횡성군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제9회 평생학습축제 및 제94회 어린이날 행사에 우리 복지관도 참석하여 이를 동안 부스운영을 하였습니다. 5월 5일(목)에는 여름철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손 세정제 만들기를 실시하였으며 무료체험이기도 하지만 시기에 맞는 필요한 물품을 체험을 통해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 인기 또한 높았습니다. 5월 6일(금)에는 나무수첩 만들기를 진행하였고 이 또한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에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어느 해 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체험물품으로 준비한 재료들이 일찍 떨어져 아쉬워하며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어 다음 행사에는 보다 많은 체험재료를 준비하여 각 지역에서 참여한 분들에게 복지관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2016년 교양강좌



“어제는 삼일새마을금고? 오늘은 삼일용역!”

“이달의 주거환경개선”



5월 주거환경개선은 안흥면에 거주하는 지적장애를 가진 형제와 초등학교 2학년인 막내, 아빠가 생활하는 한 부모(부자) 가정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시던 엄마가 4월에 시설 입소하면서 남자 4명이 생활하는 가정 환경으로 인해 집안 이곳저곳에 쓰레기와 비위생적인 주방, 화장실 등 전체적으로 청소가 필요한 가구였습니다. 이 가구의 깨끗한 주거환경제공을 위해 삼일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나서주셨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직원들의 호흡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방, 화장실, 방청소, 외부환경정리로 업무분장을 하였고, 고광열 이사장님의 솔선수범과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조화로운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3시간을 쉼 없이 쓸고 닦고 정리한 결과 “삼일용역입니다”라고 자부할 만한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삼일새마을금고에서는 청소와 함께 일상생활물품 지원, 대상자 가족과의 점심식사 등 훈훈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주셨습니다. 지역의 든든한 금융기관에서 사각지대 장애인가구에 함께 해 주신 넉넉한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외식하는 날♪”

5월 19일, 가정의 달을 맞아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 16명을 초대하여 외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중화요리로 횡성읍 차이원 김병도 대표님께서 외식지원을 도와주셨습니다. 짜장면, 짬뽕, 칠리 새우, 당수육 등 배불리 먹고 아이들끼리 나가 노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5월 31일에는 횡성우체국의 이영준 국장님의 지원으로 횡성관내 장애인 25명을 초대하여 횡성축협 한우프라자에서 외식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날은 외식이 처음인 장애인도 있었으며, 서로 갈비뼈를 밟려 주고, 가위로 잘라주는 배려있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6월 16일, 문내면 장애인 27명에게 외식지원을 하였습니다. 매년 문내면 재가 장

애인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언덕위의 장독대 구분옥 대표 부부는 올해도 메뉴에도 없는 백숙을 정성껏 만들어 주셨습니다. 뽀얀 백숙은 여름이 다 가온 것을 알려주는 듯 하였습니다.

6월 24일, 횡성을 함발식당 김남규 대표님께서 강림지역 재가 장애인 21명을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횡성읍 9개 읍면 중 산간벽지지역이 많은 강림은 평소 외식이 힘들었기에 이날 다들 기쁜 마음으로 식사 할 수 있었습니다. 5, 6월에 많은 분들께서 재가 장애인 분들에게 외식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항상 따뜻한 온정이 담겨진 요리를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이원

횡성한우프라자

언덕위의 장독대

함발식당

상반기 직원연수

6월 3일과 4일, 1박 2일의 상반기 직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복지관의 직원들이 모두 모여 1박 2일의 연수를 실시하기는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연수 첫날 오전 9시 복지관 강당에 모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전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심리여행으로 자아의 이해결과제를 탐색, here-now로의 연결을 통한 자기 이해를 높이고, 대인관계에서의 문화에 대한 인식 및 관점의 폭을 넓힘으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진행해 주신 보람원 배현순 실장님께서 전술한 이야기와 강의로 직원모두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이 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안산대부도를 향해 출발 하였습니다. 대부도에 도착하여 짐을 정리하고 이어 시작된 전 직원 단합체육대회는 편을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모두가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웃고 즐기며 그간의 서로를 나누지 못했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저녁시간 서로 둘러 앉아 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보물찾기 게임과 그 안에 직원들을 향한 글이 담겨있는 카드를 읽고, 서로 격려해 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룻밤 집이 아닌 곳에서 직원모두가 모여 함께 이야기하고 웃음과 이야기로 서로를 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모든 일정을 준비하시고 깜짝 이벤트로 보물찾기까지 세밀하게 준비해 주신 관장님께 감사하며 직원모두에게 헐링과 충전의 시간이 되었던 직원연수였습니다.

이동복지관

기획·지역연계팀에서는 “원거리 이용자를 찾아! 이웃과 함께하는 이동복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3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진행상황으로는 3월 22일(화) 안흥면-소사보건진료소, 4월 29일(화) 둔내면-화동보건진료소, 6월 8일(수) 갑천면-하대보건진료소로 다녀왔습니다. 외지의 지역에 살고계신 장애인분들을 만나 우리 복지관을 홍보하고, 작은 서비스이지만 손길을 받을 때 기뻐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찾아간 저희를 더욱 힘나게 하였습니다. 이동복지관은 지리적 여건상 복지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청력검사 및 귀지 청소, 이미용, 기초건강관리, 복지상담 등이 이루어지며 이동지원과 간식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천면 이동복지관 진행 시 이동복용도 실시하게 되어 중증장애인 3분의 복용도 서비스해 드릴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동세탁 및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복지관을 홍보하고,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동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희망!”

우리복지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 26일에는 응급상황대처 교육 및 심폐소생술 등을 배우며 긴급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하여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을 전 활동보조인이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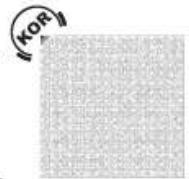
6월 9일에는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에서 주관한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2016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변경 사항 및 서비스 제공시 수급자와의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 등 서비스 향상 및 제공인력의 심적 안정을 위한 교육 등을 이수하였습니다. 우리복지관은 앞으로도 횡성 관내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및 생활 안정과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횡성청년회의소(JCI)에서 주최한 ‘애매모호(愛賣模護) 제1회 한마음 프리마켓’에 느티나무합창단이 출동하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2016. 5. 21(토)에 횡성청년회의소(JCI) 주최로 실시된 ‘애매모호(愛賣模護) 제1회 한마음 프리마켓’ 행사에 찬조 출연을 제의 받고 약 한달 가량 ‘오빠생각’, ‘황혼의노래’를 정원국지휘자 선생님을 비롯하여 단원들이 혼신의 힘으로 연습을 하여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주말 이지만 우리 단원들은 JCI의 프리마켓이 좋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사업인 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합창실력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여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첫 공연을 우리느티나무 합창단이 장식을 하게 되어 더욱 뜻 깊었으며, 우리 합창공연이 첫 번째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대회경험을 살려 부담감을 다소 줄일 수 있었으며, 애의무대의 열악한 무대장치를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공연이 끝났을 때에는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조금은 힘든 일정이었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느티나무합창단 단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횡성군 지역내의 여러 행사에 느티나무합창단의 노래 소리가 퍼지길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즐거운 자원봉사”

봄의 햇살이 조금은 따가워지던 5월 22일. 횡성읍 삼일공원에선 무더위가 아닌 행복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가족사진이 없는 가족에게 촬영 및 사진을 지원해 주시는 한효성 모모스튜디오 사장님께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공근면과 둔내면에 거주하는 장애인 2가구를 초청하여 예쁜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항상 베푸는 삶을 꿈꾸는 한효성 사장님을 인터뷰 해 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학생 때부터 저보다 몸이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Q. 자원봉사를 하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도움을 준다기보다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 때나, 사진 봉사를 할 때는 완성된 사진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Q. 자원봉사를 지속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기뻐하는 그 순수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자원봉사를 하면서 스스로 변화한 점은 무엇일까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 스스로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좋아하게 된 거 같아요.

Q. 자원봉사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렵게 생각 할 수록 더 다가가기 힘든 거 같아요. 손 한번 잡아 주는 것 머리 한번 쓰다듬 어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 같아요.^^

Q. 횡성군장애인증합복지관에게 바라는 점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5~6월 후원 및 자원봉사자 현황

5~6월 일반후원자

강성희, 강현호, 고미경, 고미령, 고연섭, 고정미, 고치용, 구승희, 권상숙, 권종순, 김경미, 김길환, 김덕주, 김동교, 김동규, 김동표, 김부경, 김문화, 김미숙, 김미영, 김상구, 김성기, 김성오, 김수완, 김수자, 김수진, 김승태, 김시현, 김연순, 김연우, 김옥희, 김원수, 김원정, 김은숙, 김주영, 김준석, 김진숙, 김진우, 김장배, 김필기, 김현진, 김형욱, 김혜령, 김희자, 남기석, 남기호, 도송란, 뮤기쉽, 명필주, 문현숙, 박동선, 박병대, 박상우, 박소정, 박재형, 박종우, 박진동, 박행문, 박혜진, 배양숙, 배영희, 배윤희, 백영선, 서정원, 손정옥, 송석구, 송주철, 송출자, 신경순, 신구선, 신명근, 신비아, 신인섭, 안신영, 양동선, 양명모, 양준식, 양진주, 엄선이, 오도형, 오미영, 오상숙, 오연근, 오원종, 오태환, 원경문, 원동규, 원영국, 원종호, 원필연, 유옥자, 유제호, 윤광호, 윤금순, 윤석윤, 윤은숙, 이경란, 이경모, 이계화, 이광모, 이기성, 이기호, 이대균, 이동희, 이득귀, 이명희, 이미경, 이병남, 이병완, 이병건, 이상진, 이선자, 이성숙, 이술인, 이승하, 이승희, 이연숙, 이연호, 이영규, 이원, 이원진, 이은숙, 이임준, 이정숙, 이종현, 이중철, 이철영, 이필덕, 이현희, 이호근, 임덕수, 장성구, 장유진, 장태종, 전미경, 전소영, 전승권, 전현숙, 전형순, 정미향, 정병돈, 정병호, 정영, 정운갑, 정윤석, 정윤철, 정진, 정혜영, 정호태, 조만희, 조병래, 조완경, 조원용, 조윤숙, 조인숙, 진광선, 진기영, 채수봉, 채수형, 채효진, 죄권식, 죄규만, 죄동섭, 죄성기, 죄성은, 죄승연, 죄승진, 죄영미, 죄영실, 죄윤미, 죄정은, 죄정인, 죄창현, 죄희영, 하남신, 한규호, 한동순, 한만전, 한문화, 한송화, 한유리, 한창수, 혀만용, 혀애지, 형귀순, 홍기옥, 홍순정, 황영호, 호석이두마리치킨, (주)강원이엔씨, 강원전기, 강태원복지재단, 꽂수래, 사람과환경, 선덕의료재단, 영선카센타, 한바이오, 혜피빈, 황소해장국

5~6월 물품후원자

농아인협회횡성군지부장, 대상에프엔에프, 빵굽는사람들, 섬강디자인, 시각장애인협회씨티디자인, 언덕위에장독대, 장애인협회, 차이원, 킹마트, 푸드뱅크, 한우리직업장, 함반식당, 횡성혜물, 신회정, 최명훈

5~6월 자원봉사자

고경옥, 고광열, 고연순, 구금자, 김관숙, 김금자, 김남철, 김다영, 김동규, 김동성, 김명우, 김마혜, 김민수, 김민계, 김복련, 김성남, 김성미, 김숙열, 김순우, 김영숙, 김영순, 김영자, 김용숙, 김정숙, 김정순, 김주우, 김지연, 김춘희, 김태환, 김태훈, 김형선, 김화선, 김홍기, 김희자, 남진숙, 도현지, 민영기, 박경옥, 박근혁, 박병인, 박선자, 박소현, 박수영, 박순재, 박영선, 박주성, 박찬목, 배경필, 배덕주, 배영희, 손주완, 송국현, 송영명, 신재현, 심경흡, 안광례, 안연자, 양준식, 오길순, 우금순, 우옥자, 원동환, 원은혜, 윤수원, 윤영자, 윤재숙, 윤준우, 윤화열, 이경자, 이상순, 이순영, 이애숙, 이용주, 이용웅, 이용진, 이용표, 이인남, 이자용, 이정립, 이주희, 이춘화, 이혜연, 임영숙, 장석인, 장정희, 정보민, 정순희, 정연호, 정윤자, 정장화, 정현근, 조미자, 조병래, 조영숙, 조태호, 진현미, 진현우, 재근용, 최금예, 최기순, 최미현, 최선진, 최성기, 최성희, 최연식, 최영순, 최윤철, 최자운, 최재순, 한동순, 한정임, 한창수, 한현정, 한효성, 함분숙, 함재령, 함재택, 허정미, 흥근표, 흥기복, 흥두기, 흥미강, 흥선자, 흥지명

* 복지관 운영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 종류

일반 후원: 장애인을 위한 전체 복지사업

결연 후원: 후원자가 직접 장애인에게 생활비 및 물품 지원

지정 휴원: 특별히 지정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물품 후원: 각종 물품 지원

저금통 후원: 제작된 저금통을 관내 유관기관 등에 비치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횡성군장애인증합복지관

농협 301-0019-4889-21

신협 131-014-321594

농협(장학계좌) 301-0034-2613-11 우체국 200162-01-006284

후원문의 전화 033) 345-7341-2(문영지원팀)

자원봉사 안내

참여대상: 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주부(직장인·전문가 등 장애인에게 따뜻한 나눔의 마음으로) 등으로서는 개인과 단체 모두 가능합니다.

참여방법: 전화나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활동영역: 노숙분사: 관내 문동보조·식사·주방보조·방과후교실·체육학부·체육부·체육부 등

▶ 전문분사: 양방활동지도·자로실·주방장비·행장점부·체육장비·체육장비 등

▶ 방문분사: 미술·음악·글쓰기·체육 등

▶ 방문분사: 가사지원·밀반찬·조리·청소·빨래 등, 방문미미용서비스, 학습지원(학업지도·컴퓨터지도)

모집기간: 연중수시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 홍보”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안내

신규과정 11월 14일(월)-11월 18일(금) 5일간 진행
전문과정 12월 05일(월)-12월 07일(수) 3일간 진행

※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과정입니다.

장소: 원주시청

교육 시간: 09:00-18:00(점심시간 별도)

교육비: 신규 10만원 / 전문 5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활동보조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횡성군장애인증합복지관(033-345-734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자 김수진 (070-4612-9749)

사회복지법인 횡성시립
횡성군장애인증합복지관
Home page: www.hsb.or.kr

횡성군장애인증합복지관은 지역 내 모든 장애인과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용, 상담 및 접수예약은 전화나 내방하시면 됩니다.

문의 033) 345-7341-2 시간 월~금 (09:30~17:30)